

제 19 호

사순절 제 5 주일

1973. 4. 8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론]

교무금은 왜 바쳐야 하나?

오 기 순 신부

기구하는 뜻에서 교무금을 바칩시다. 기구란 천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천주님께 먼저 정성을 올려야 합니다. 이 정성이 바로 교무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뜻으로 교무금을 바칩시다.

감사하는 뜻으로 교무금을 바칩시다.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벌어들여 사는데 무엇이 천주께 감사해야 할까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벌어들여 산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란 말이 같이 우리 생명을 죽 우리 생사의 절대권을 천주님께 쥐고 제칩니다. 막말로 썩은 고목과 같이 죽어 넘어진 자가 과연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죽 죽은 자가 살기위하여 온 전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천주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불행히도 대죄중에 있을 때 우리 생명을 담장 거두신다면 우리 영혼이 그 얼마나 비참하게 될까요? 참말로 영원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죄중에 있을 때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며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천주님께 감사해야지요. 그 외에도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감사의 뜻으로 교무금을 천주님께 바칩시다.

용서를 비는 뜻에서 교무금을 바칩시다. 대체 우리는 천주께서 무엇을 용서하시라는 것이지요? 무슨 잘못이 있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용서하시라고 벌어야 할까요 성현도 하루에 일곱번의 과오가 있다는데 우리와 같은 범부는 이루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전지하신 천주님앞에 허심탄회하게 양심을 털어놓고 살살이 살필 때 우리는 천주님께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천주님 앞에 저지른 죄도 하도 많기에 천주님께 이 많은 잘못을, 이 크고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시라고 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라는 뜻을 포함한 교무금을 바쳐야 합니다.

속죄하는 뜻에서 교무금을 바쳐야 합니다. 죄의 뒤를 따르는 것은 그 죄와 상응한 벌입니다. 죄를 용서받아도 그 죄의 벌은 남아 있어 그 벌을 없애는 것이 속죄라고 혹은 모속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지른 모든 죄에 벌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벌을 못다 받으면 죽어 연옥에서라도 속죄를 즉 보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지른 잘못도 많고, 그만큼 속죄할 것도 많으니 속죄의 제물로 교무금을 바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뜻으로 우리는 자진해서 교무금을 바쳐야 합니다.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하느님 나의 울음을 판단하소서. 매정한 백성을 거스려 내 송사를 두둔하시고, 악하고 각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하느님 당신은 내 굳센 힘이시오이다.

□ **독서** (히브리서 5:7-9, 성서 P. 502)
 복종하는 것을 배우신 예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 **창계송** ◎ 하느님 내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소서. 애련함이 크시오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 **복음 전 노래**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 **복음** (요한 12:20-33, 성서 P. 238)
 밀씨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신자들의 기도**
 1.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들로 하여금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생활에 힘씀으로서 당신의 구원사업의 큰 뜻을 달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당신은 모든 아름다움과 사랑의 근원이시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당신을 생각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소서 ◎

3.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이 사순절 동안 판공 성사의 특은을 저희들이 모두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 **맺을 기도 (사순절 기도)**
 무한히 인자하신 주 천주여 비오니, 우리의 죄만을 보지 마시고,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속죄의 회생을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 **영성체송**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이 주간의 성경 *

- 9 (월) 독서 (로마서 14: 1-12, 성서 P. 364)
 복음 (요 한 8: 1-11, 성서 P. 223)
- 10 (화) 독서 (로마서 14: 13-23, 성서 P. 365)
 복음 (요 한 8: 21-30, 성서 P. 225)
- 11 (수) 독서 (로마서 15: 1-6, 성서 P. 366)
 복음 (요 한 8: 31-42, 성서 P. 226)
- 12 (목) 독서 (로마서 15: 7-13, 성서 P. 366)
 복음 (요 한 8: 51-59, 성서 P. 227)
- 13 (금) * 금요일의 날 *
 독서 (로마서 15: 14-21, 성서 P. 367)
 복음 (요 한 10: 31-42, 성서 P. 232)
- 14 (토) 독서 (로마서 15: 22-33, 성서 P. 368)
 복음 (요 한 11: 45-56, 성서 P. 236)

□양서안내 □



천국의 열쇠

즐거리 주인공 프랜시스 치شم이 갑자기 부모를 잃게되는 어느날의 음울한 사건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는 유년시절도 지나고, 자비로운 속도 폴리의 출현으로 소녀 노라와의 사랑도 움트면서 그의 인생은 잠시 밝아지나 다시 밀려온 뜻밖의 비극은 노라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치شم은 성직의 길을 택했다.

스콧틀랜드인 특유의 강직한 그의 성실성은 주위의 오해와 백안시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1800년 말기, 신비스러운 대목인 중국 벽지의 선교사로 건너간다. 여기에서도 문명을 등진 무지와 전염병과 흉수와 비적들과의 끊임없는 투쟁뿐이나 불굴의 의지로 자기의 삶 모두를 쏟으면서 선교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의 성실한 인간성이 겨우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게될 때, 그는 주교의 명으로 병든 노구를 이끌고 여전히 냉대가 심한 본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실망을 모르는 그는 기구한 운명의 안드레아(노라의 아들)를 데리고 아름다운 추억의 고향 티드 강변의 한적한 본당 주임신부로 후회없는 평화로움 속에서 파란많은 반생을 반추하며 노후를 보낸다.

작품의 가치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을 눈에 보이는 질량으로만 측정하려드는 범속한 눈으로 본다면 치شم신부의 일생은 실패만이 연속되는 비참뿐이요, 오히려 명석한 두뇌와 요령좋은 수완으로 주교위까지 올라 명성을 떨치는 안셀모 밀리신부를 인생의 성공자로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치شم신부의 인간상이 더 매력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왜일일까?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 하나가 마음 밑바닥까지 울리도록 감동적인 것은 무엇에 연유한 것일까?

우리의 솔직한 양심은 영광된 밀리신부가 아니고 치شم신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치شم신부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다. 밀리신부형의 인간이 활개를 치는 혐오스러운 현실속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명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천국의 열쇠〉란 반드시 크리스찬만이 지향하고 있는 천상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삶이란 엄숙한 과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기울여 성실하게 살아나갔을 때 주어지는 행복된 보람,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임을 주인공 치شم신부의 일생이 응번으로 보여 준다. 드물게 보는 감명깊은 휴머니즘이 넘치는 작품이다. (성 바오로 서원 제공)

□ 양지쪽 □



세 바늘

하도 요란스러운 박치기를 해서 눈두덩을 세 바늘이나 꿰맨 사고가 있었다. 서로가 악의없이 부딪쳐서 생긴 일로 한 사람은 이마가 붓고, 한 사람은 눈두덩이 찢어졌다. 그래서 대장 대장 지혈을 시키고 병원 진찰대에 누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2.5Cm가량 찢어졌기 때문에 꿰매야 한다는 것이다.

환부의 소독과 눈썹깎기 작업이 끝나고 맹정신의 눈두덩에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아플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상기되었다. 때가 마칠 사순절인지라 고통을 잘 참아야겠다던 서도 바늘이 살갗을 빠져 나올 때마다 다음에 또 꿰매야 하고 신경이 쓰였다. 세 바늘을 끝내고 나니, 짐작이, 거의 다 꿰맨성 싶어 이제는 됐구나 하면서도 혹시 또 하면 어떻게 참을까 하고 떠 거정이 되었다. 그런데로 치료가 끝나고 보니 꿰매면서 느꼈던 심경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마음 가볍게 고통을 참아 받을 수는 있었다.

고통없이 사는 사람은 없는 성실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성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모두를 제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속에서 해를 넘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기 싫어 하는 것도 인지상정이고.

문제는 고통을 받아 드리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의 마음이짐인 것이다. 단돈 십원을 구걸하는 어린이에게 주면서도 때론 손에 옷이 더럽혀질까 해서 찡그린 얼굴을 하며 던져주는 것하고, 마음 속으로 부터 일어나오는 형제의 정으로 쥐어 주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당신은?

(잡)

고등학생부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소설

천국의 열쇠

(4·6판, 376면, 값 700원)

지은이 의학박사 A.J. 크로닌
대표작(인생의 도상에서, 성체등 다수)
옮긴이 이승우 선생

※ 이전안내 ※

등산용구 일체 취급

요셉 산악 센터

교우에게 특별 할인

전동 3가 명산 약국 앞

김대원 (요셉)

최씨관집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병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② 6691 교환85번)

* 대화의 광장 *

● 잔디밭 ●



미 소 정 찬 희

도무지 마리아님의 형체를 나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키, 몸집, 나이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해둡시다. 그러나 눈, 코, 입, 귀의 소재만은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얼굴모습 말입니다. 그렇다고 미추를 가리자거나 따지자는건 물론 아닙니다. 훌륭히 내게 던져 주곤 하는 마리아님의 부드러운 미소—유리처럼 투명한 그 미소에는 관념상의 미추가 통히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님의 미소는 티 하나 없는 유리알모양 투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님의 그 유리처럼 맑은 미소에다가 선 불리 나는 기성 관념의 가래칩 같은 속된 의미를 뱉어 버릴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래칩같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오해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도 걸잡을 수 없이 투명하기만한 마리아님의 미소에 접할 때마다 나는 어떤 불안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삼등 기차칸에서 목격한 서글픈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창가에 자리잡고 밖을 내다보고 있던 시골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자기 목을 느리고 가래를 뚫구더니, 그대로 유리창을 향해 탁 뱉어 버렸었습니다. 그러자 유리창에 부딪친 가래칩이 주르르 흘러 내리는 것은 말할 나위조차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 광경

은 두고두고 나를 협박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투명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마리아님의 전부도 그저 무형의 미소일 따름입니다. 그처럼 마리아님의 미소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투명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무런 얼굴의 윤곽이란게 없지 않습니까? 허공에 그냥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나타날 뿐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님은 이제 내앞에 어떤실체로서 나타나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는 마리아님의 증대할, 그리고 시급한 의무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그를 믿고 따르되 재생을 의심하는 우리앞에 현신하여 손바닥의 못자국까지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나는 마리아님에 대한 사모와 동경에서 출발한 것은 물론 아닙니까.

나는 벌써 몇차례나 마리아님의 자태와 음성을 깊은 환각에서 더듬어 보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이상 걸잡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걸잡게 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겠습니까? 더 더구나 나 자신에게 있어서 무슨 영통한 보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런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리아님께부탁쳐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님의 그 미묘하고 신비한 미소는 나의 신체 속에 영속히 살아 있기에 말입니다.

(전주 공교 기계과 3년)

가톨릭 방송 시작

(소)

M.B.C. 방송국은 4월 2일부터 매일 아침 7시 5분부터 10분까지 <사색의 오솔길>이라는 가톨릭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진소 신부님께서 방송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이기순 도민교 신부님 1주기 고 이기순 도민교 신부님의 1주기 위령미사가 4월 11일(수) 오전 11시 중앙성당에서 봉헌됩니다. 기도 중에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시)

학생회 전주 지구 연합회

4월 8일 오후 4시 전통 성당 사제관에서 전주지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본당 학생회 대표 4명과 지구 연합회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9 (월) 외국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0 (화) 젊은이의 광장—유장훈 신부 지도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독어(A), 오후 4:30-5:30)

- 12 (목)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불어, 오후 5~6시)
- 13 (금) 외국문화 교실(독어(B), 오후 3:30-4:30
" (독어(A), 오후 4:30-5:30)

교우들의 전당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고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⑥6094

축 발전

동남 샵프

{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화 ②8121

여요셉(운창)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 1. 판공성사 일정 (매일 오전 9~12시, 오후 2~5시)
- 4.12(목)-진복 1.2구 4.16(월)~서노, 중노
- 4.13(금)~태평 1.2가 4.17(화)~기타

- ① 개정된 성사표를 당일 수녀님께 교부받을 것
- ② 성사표의 주소와 직업, 직장란을 연필로 상세히 적을 것

- ③ 가급적 교무금을 준비하고, 지정된날에 성사볼 것
- 2. 고등부 학생회(공식미사후, 강당에서)
- 3. 꾸리아 윌레회(오늘 오후 2시, 강당에서)
- 4. 부녀부 간부회의(공식 미사 후)
- 5. 성체 감복 및 말씀의 전례(4월 12일 <목> 오후 8시)

□ 지난 주일 봉헌금 31,775원, 감사합니다.

☆축선사☆ (제15대 학생회 임원)

김선용(회장), 김영란(부회장), 나진근, 은영, 김금순(총무부) 이승우, 이영향, 이기순(성화부), 최성조, 강영순, 김복량(재경부) 이상규, 김옥영, 유양희(오락부), 송종수, 한성수, 최영숙(체육부) 노승환, 신정숙, 김순원(학술부)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이태영

- 1. 신용조합 윌레회(오늘 공식미사 후)
- 2. 불 판공 성사 일정(고백시간 매일 오후 3시)

- 4.19(목)-인후동, 유아동, 신교리
- 4.20(금)-중노송동 2가
- 4.21(토) 남노송동, 중노송동 1가

※ 세대주는 오전에 성사표 받아 가시고, 사순절 애공비, 교무금, 판공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날짜와 시간을 지킵시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0,9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1. 불 판공 성사 실시
- 4. 16(월)-덕진, 팔복동 4. 17(화)-금암, 송천동

※ 충분한 준비 (몸과 마음, 교무금, 판공비-호당100원)로 성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본당·공소 친선 배구 대회(부활주일) 각 단체에서는 시합에 대비하여 충분히 연습합니다

- 3. 신용 조합 윌레회(4월 15일 공식 미사 후) 윌레회 때에 조합원들은 도장 지참하시기 바람

□ 지난 주일 봉헌금 5,627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협조자

누계 6,177,400원

남원 누계 50,000원 덕진 누계 50,000원
 북자 누계 1,265,000원 서화동 누계 581,400원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1. 부활 판공성사 일정
- 4.17(화)-다가동 1. 2. 3. 4가, 중앙동 1. 2가
- 4.18(수)-고사동 1. 2가 중화산동, 효자동, 완산동

- 4.19(목)-태평동 2가, 진복동, 기타
- 4.20(금)~21(토)-학생과 직장인

- ① 시간 엄수하시기 바람
- 매일 오전 10~12시, 오후 3~5시반, 저녁미사 후

- ② 교무금을 준비하여 본당 운영을 도와주시기 바람.
- 2. 사제양성 후원 기금 불입 요망(3, 4월분)

- 3. 감사합니다. (중앙동 홍마리아씨가 사무실 내·외 부를 수리해 주셨습니다.)

□ 지난 주 성미 5말, 누계 123말 4되
 □ 지난 주일 봉헌금 13,700원, 감사합니다.

(서화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김육남

-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밤 미사 후)
- 2. 판공성사 일정
- 4. 14(토)-공무원, 공직자, 학생에 한함
- 4. 16(월)-1~12반 4. 17(화)-13~18반, 삼천동

□ 지난 주간 교무금 37,500원
 □ 지난 주일 봉헌금 7,912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 1. 자모회 윌레회(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
- 2. 애령회 특별 헌금(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범자 판공 성사(9일까지 사무장에게 신고 바람)
- ※ 아직 성사 못보신 분은 평일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 4. 신용조합 윌레회(14일 <토>밤 8시, 강당)

□ 구역별 단합대회
 본당 신부님과 사도회장님 임석하에 각구역별 단합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람.

- 아 레
- 4월 9일 밤 7. 30분 남노송동 (송재진 부회장대)
 - 4월 10일 밤 7. 30분 풍남동 (장준수 부회장대)
 - 4월 11일 밤 8시 전동(중앙동, 경원동, 다가동, 가타동) (성당, 사제관)
 - 4월 12일 밤 7. 30분 동완산동 (구역 회장님대)
 - 4월 13일 밤 7. 30분 서완산동 (구역 회장님대)
 - 4월 14일 밤 8시 교동(1, 2가) (성심학교장선생님대)
- ☆축 결혼☆ (4월 12일 <목> 12시)
 신랑 이종길(요안)군과 신부 광해자 (벨라벳다)양
 □ 지난주일 봉헌금 27,153원 감사합니다.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 2212 ㉠7071)
 김 병구(빈첸시오)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장☆

결혼 미용실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이현주(메테사)
 전화 ㉠ 6794
 중앙성당 앞